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

2014년 4월 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이상준 과장(044-203-4320), 최수연 사무관(044-203-4326)
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사업팀 이창호 팀장(02-2079-4990), 이광희 소령(02-2079-4992)

산업부-방사청, 헬기개발을 위한 공동사업설명회 개최
- 양 부처에서 협업하는 항공체계사업 추진에 항공산업계에서도 뜨거운 관심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와 방위사업청(청장 : 이용걸)은 4월 3일(목) '소형무장헬기·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 공동 사업설명회'를 개최하였음

< 공동사업설명회 개최 개요 >

① 일시·장소 : 4.3(목), 14:00~16:00/더케이호텔

② 참석자 : 산업부, 방사청 사업관계자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항공우주산업(주), (주)대한항공 등

○ 금번 사업설명회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관련기관 및 한국항공우주산업(주), (주)대한항공 등 국내 체계업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음

○ 민·군수 헬기의 연계개발 계획, 사업추진 일정 및 계약·협약 조건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동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림으로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,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드러낸 뜻깊은 자리였음

□ 소형무장헬기와 소형민수헬기의 연계개발 방안은 경제성과 기술성 등을 고려한 양 부처의 오랜 교감 끝에 도출되었으며, 제8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('13.11) 및 제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('14.2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음

○ 소형민수헬기는 국내·외 유수업체가 국제공동개발 방식으로 기술개발, 시험평가, 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10,000lbs급 소형헬기를 2020년까지 개발하고자 하며,

○ 소형무장헬기는 민수헬기에서 先개발된 민군 겸용구성품을 활용하고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무장·사격통제 체계를 통합하여 2022년까지 개발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

○ 본 개발사업은 수리온 개발사업 이후 한층더 성숙한 헬기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, 노후화된 군용 헬기의 적기교체 및 응급의료, 해상감시 등에 활용되는 민수헬기의 세계시장 진입을 목표로 함



□ 산업부와 방사청은 5월 말까지 국내 체계업체의 제안서를 접수하여, 각 사업의 기획 및 사업화 방안 뿐만 아니라 양 사업의 연계개발방안 적정성 등을 양 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할 예정

○ 이를 통해 선발된 예비사업자(우선협상대상자)를 대상으로 협상 및 과제 기획(해외 파트너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 포함) 등 사업자 선정단계를 거쳐, 10월 경 본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할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임

□ 산업통상자원부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“본 사업은 민과 군의 수요를 충족하는 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, 국비가 총 1조원 가량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”임을 강조하며,

○ “본 연계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 부처는 국책사업단 구성·발족을 준비중이며,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음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